

7번째 20홈런 시즌 ‘리빙레전드 양의지’

‘포수 최초’ 기록을 수집하는 사나이

지난 6일 경기서 의미있는 한방
이만수 6시즌 넘어 7시즌 20호
작년엔 포수 첫 30홈런 100타점
4월엔 포수 1호 사이클링히트도
KS 2회 MVP수상도 포수론 처음

NC 양의지는 포수 최초의 각종 기록과 타이틀을 수집 중인 ‘리빙 레전드’다. 6일 잠실 두산전 5회 터트린 좌월 솔로홈런으로는 역대 포수 최초로 7번째 20홈런 시즌을 만들었다. 스포츠동아DB



‘곰 탈 여우’, ‘양희장’, ‘양보르기니’ 등 여러 별명이 있지만 ‘포수 최초’라는 수식어가 가장 잘 어울린다. 이미 술한 역사를 써내려갔는데,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이 더욱 무섭다. 한국야구는 지금 양의지(34·NC 다이노스)라는 ‘리빙 레전드’의 완성을 보고 있다.

양의지는 6일 잠실 두산 베어스전에 4번타자 겸 포수로 선발출장해 5-2로 앞선 5회초 좌월 솔로홈런을 때렸다. 시즌 20호 아치로 홈런 공동선두에 오르는 한 방. 양의지는 이 홈런으로 4년 연속 20홈런 고지에 올랐다. 두산 시절이던 2018년(23홈런)을 시작으로 NC 이적 이후 20홈런~33홈런~20홈런을 차례로 신고했다. 포수로 4년 연속 20홈런은 강민호(삼성 라이온즈·2015~2018년)에 이어 역대 2호다.

포수 최초 5년 연속 20홈런 고지는 내년에 도전장을 내겠지만, 이외에도 포수 최초 기록 하나를 세웠다. 양

의지는 최근 4년 외에도 두산 시절인 2010년, 2015년(이상 20개), 2016년(22개) 20홈런을 넘겼다. 올해가 7번째 20홈런 시즌. 주 포지션이 포수인 선수들 중 최다다. 종전 기록은 이만수(6차례)인데, 양의지가 신기원을 이뤘다.

포수 최초 기록이 너무도 익숙하다. 양의지는 지난해 130경기에서 타율 0.328, 33홈런, 124타점을 기록하며 정규시즌 우승에 앞장섰다. 타율 3할·30홈런·100타점은 포수 최초의 사건이었다. 3할·30홈런, 100타점 등을 각각 기록한 사례는 강민호, 조인성 등이 있었지만 이를 함께 달성한 ‘몬스터 시즌’을 체력부담이 심한 포수로 보면 이는 양의지가 유일했다.

지난해 정규시즌에 이어 한국시리즈(KS) 6경기에서도 타율 0.318, 1홈런으로 활약하며 통합우승에 앞장섰다. 지난해 KS 최우수선수(MVP) 역시 양의지의 몫. 두산 소속이던 2016년에 이어 개인 2번째 경사였

다. 역대 KS MVP 2회 수상자는 양의지가 5번째이자, 포수로는 최초였다. 아울러 다른 2개의 팀 소속으로 KS MVP를 받은 것은 포지션을 불문하고 양의지가 최초였다. 올해 4월 29일 대구 삼성전에선 포수 최초이자 역대 28번째로 히트 포 더 사이클(한 경기 안타·2루타·3루타·홈런 동시 기록)을 달성하기도 했다.

정작 본인은 “기록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말한다. 겉으로는 이처럼 무심한 선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구보다 구슬땀을 흘리고, 또 팀을 한 곳으로 묶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코칭스태프가 양의지라는 선수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것은 그라운드 밖에서의 모습이 더 크다. KBO리그 40년 사상 최고의 포수라는 종착지가 임박한 분위기. 이제 양의지의 라이벌은 그가 앞에 선 거울 속에만 존재한다.

▶ 프로야구 관련기사 2·3·4면
잠실 |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톱스타급 여성에 포르쉐 차량 제공 수산업자 김씨 연예계도 로비 의혹

검정·정치권·언론계 이어 연예계까지 파장 확산
과거 연인설 불거진 여성스타소속사 의혹 부인
함께 찍은 연예인들 사진 공개 게이트 비화 촉각

100억원대 ‘오징어 투자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자칭 ‘수산업자’ 김모 씨의 금품 살포 의혹이 정계·검찰·경찰·언론계 등에 이어 연예계도 파장을 미치고 있다. 김씨가 여성 연예인을 비롯해 연예관계자들에게 고급 외제차 등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 또 일부 톱스타급 여성 연예인이 “과거 김씨의 연인이었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언론 보도와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고 있다. 김씨와 관련된 행사에 일부 연예인이 초대되거나 축하 메시지 영상을 보낸 사실이 잇따라 알려지기도 했다. 연예계는 ‘수산업자 게이트’로 비화하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7일 각종 온라인 사이트에는 김 씨와 과거 연인 사이였다는 의혹이 불거진 여성 가수 겸 연기자의 실명이 나돌았다. 유튜브에서도 엇비슷한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해당 연예인의 소속사 관계자는 이날 “김씨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부인했다. 또 전날 MBC ‘뉴스데스크’는 2018년 초부터 약 2년 동안 김 씨와 일했다는 한 직원이 “유명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 선물을 전했고, 유명 여성 연예인과 매니저에게도 포르쉐 차량 등 외제차와 명품, 귀금속 등을 보냈다”고 주장한 내용을 보도했다.

일각에서는 일부 정치인과 현직 검사, 경찰서장, 종합편성채널 앵커를 비롯한 언론인 등이 김씨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실과 연관짓는 시선을 보낸다. 연예인과 연예관계자들에게 금품을 건네며 ‘로비를 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예관계자들은 “신인을 키워야 하거나 연예사업을 벌이려는 것이 아니었다면 연예인과 관계자들에게 로비를 해서 얻을 만한 실익이 있을지 의문이다”는 시각을 내놓는다. 김씨는 지난해 한 생활체육단체의 회장직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예 관련 활동을 펼쳤는지 여부는 알려진 것이 없다.

7일 한 관계자는 “일부 연예인을 비롯한 연예관계들과 일정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려 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위한 것이 아니었겠느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씨의 법률대리인인 이모 변호사는 이날 “이번 사건은 게이트가 아니라 사기 사건”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유명인과의 친분을 과시하기 위해 말한 내용이 주변에서 오해됐다”고 밝혔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독보적 내구성...”

CARRY & RUN

2 PIECE PREMIUM BALL

Power Distance & Soft Feel

본광고의 이미지는 연출된 내용입니다.